

사회대개혁의 시간, 시민 손으로 교육 대전환 만들자

교육의창

추교준

지혜학교

철학교육연구소장



지난 글쓰기 수업 시간에 한 청소년이 제출한 글의 한 대목이다. (그 사람은 대안학교에서 5년간 뛰어나다다가 지난 겨울, 고3이 되어 처음으로 논술학원에 등록했었다.)

“나는 논술이 내 생각이 들어가는 글 쓰기인 줄 알았다. 하지만 두 달간 내가 배웠던 논술은 예시 답안을 얼마나 비슷하게 쓰냐의 차이였다. 내가 써야 하는 모범답안은 이미 존재한다. 그러면 나는 대체 뭘 써야 하나. 단순하다. 내 생각은 일체 제외하고, 그 답안과 최대한 비슷하게 쓰면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작성한 답안의 내용은 다 똑 같다. 그저 단어 하나, 문장 뉘앙스의 미세한 차이인 것이다. (중략) 난생처음 해보는 입시 공부에 이상함을 느낀 나는 친구에게 물어봤다. 내가 하고 있는 공부가 공부가 맞는지 모르겠다고. 교육의 본질은 이게 아니지 않냐고. 시험지 안에서만 놀아나는 것이 아니라 이 개념들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하고 생각해 나갈지 알려주는 것이 교육 아니냐고. 내 물음에 친구는 이렇게 답했다. ‘나도 중학교 때까지는 그런 고민을 좀 했었거든? 근데 이제 그런 고민 안 해. 해도 바뀌는 게 없어. 그냥 공부하는 이유고 뭐고 딱 치고 죽어라 내신 챙기고 시험공부하는 거야. 결국 성적 잘 나오는 애들은 그런 고민 안 하고 그 시간에 계속 영어 단어 하나라도 더 외우는 애들이거든.’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다. 사람들은 말한다. 이제 한국 사회는 답이 없다고.

아니었다. 답이 있었다. 단 하나의 답만 이 있기에 노답인 것이다. 그리고 결국 그 답은 순전히 각자의 이익만을 위해 사용된다.”

수십 년간 되풀이되는 풍경이다. 우리 모두는 왜 이 잔인한 구조에 이토록 무감각한가. 매년 특정 언론에서는 이런저런 기준으로 대학을 한 줄로 세운다. 그리고는 입시 경쟁을 통해 청소년들을 한 줄로 세운다. (요즘에는 의대가 맨 앞줄을 차지한다) 그 줄의 순서에 따라 사람의 가치가 정해진다. 계급을 구분하는 거대한 행사가 매년 되풀이되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교육은 오랜 시간 학벌제라는 이름의 구조적 폭력에 의해 장악되어 왔다.

이것을 과연 교육이라 할 수 있을까? 여기에 삶을 생각하고, 배운 것을 적용해 보는 일은 어디에 자리 잡을 수 있을까?

학교는 더 이상 아이들이 삶을 배우는 곳이 아니다. 교사는 입시 기술자가 되었고, 청소년들은 마음속으로 서로를 경쟁자로 여긴다. 생각과 질문이 사라졌고, 우정과 협력은 흩어졌다. 남은 건 불안과 소진뿐이다. “나는 누구이고, 무엇을 하고 싶은가, 이 사회는 어떤 곳이며,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가?” 등의 질문은 공부에 방해된다. 이 얼마나 우스운 일인가? 잘 살기 위해 공부하는데, 정작 삶에 대한 생각이 공부에 방해가 된다니!

미래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입시 제도를 개선하겠다. 수능 과목을 조정하겠다. 고교학점제를 확대하겠다. AI 교과서를 도입하겠다. 정부는 언제나 이런 말만 되풀이한다. 언제나 그랬듯이 문제는 틀렸고 해법은 엉뚱하다. 이 지옥도를 만든 것은 단지 입시 선택 방식이 아니라, 그 시험에 모든 것을 걸도록 만든 교육체제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미미한 기술적 조정이 아니라 ‘대전환’이다. ‘새로운 상

상’이다. 사람을 살리는 교육을 하자. 다시 사람이 태어나는 사회를 만들자. 학벌체제를 철폐하고, 입시경쟁교육을 해체하자. 대학에 가지 않아도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자.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는 시대에 노동자들이 일하는 일터를, 부품처럼 소모되는 곳이 아니라 계속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배움터로 만들자.

이 거대한 노력의 출발은, 지금 이 구조가 얼마나 잔혹한지, 그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지 똑바로 보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윤석열, 김건희를 포함한, 저 내란잔당들의 비루한 몸부림을 보라. 저 모습이 한국 교육의 결과다. 처참하지 않은가? 저들이 권력의 그트머리에서 자기 살겠다고 허둥지둥하는 모습은, 청소년들이 교실 책상 앞에서 자기 생각을 지우고 오직 시험 문제 하나 더 맞히겠다고 아등바등하는 모습과 정확히 겹친다. 저들을 몰아내려면 교육을 바꾸어야 한다.

이런 거대한 이야기 뒤에, 한낱 개인에 불과한 자신이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냐고 묻는 나의 학생에게, 여기, 〈시민의 손으로 만드는 교육대전환〉을 소개하려 한다. 지난 4월 4일, 윤석열 파면 선고에 손뼉을 치다가 ‘내란 이후의 교육을 더 적극적으로 상상해야 한다’는 생각에 다다랐다. 나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없을까 검색해보니, ‘한국 교육네트워크’에서 지난 1월, 〈시민의 손으로 만드는 교육대전환〉운동을 제안했었다. 이 운동에 관심 가지고 눈여겨보자. 할 수 있다면 참여해서 함께 의견을 내고, 필요하다면 뜻이 있는 시민들이 힘차게 움직여서 광주·전남 지역에서 교육대전환을 위한 토론회를 열자. 지금은 사회대개혁의 시간이다. 시민의 이름으로 내란 이후의 교육을 크게 상상하자.

社說

광주대·호남대 연합, 큰 성과로 이어지길

글로벌대학 연합 모델 도전장

광주대와 호남대가 ‘2025년 글로벌 대학 30’ 공모에 연합형 모델로 도전장을 냈다.

지난 18일에는 기존 연합형 모델을 뛰어넘는 혁신안도 공식화했다. 글로벌 대학의 지향점은 혁신을 통한 세계화와 지역화에 있다. 호남대와 광주대가 이번 혁신안을 통해 지역과 국가 경쟁력을 높이길 기대한다.

이번 연합은 단순한 협약 수준을 넘어 공동입시와 표준 행정시스템, 무경계 학사개방 등 사실상 공동운영 수준의 과감한 통합 방안을 포함한다고 한다. ‘대표총장제’를 도입해 신속하고 일관된 의사결정 구조를 구축해 지역상생이라는 자·산·학 연계모델도 추진할 계획이다. 문화도시 광주에 AI·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창조문화 허브도시 조성이라는 공동목표도 제시했다. 이를 위해 ‘광주형 일자리 혁신’ 관련 4대 전략을 수립하고, 청년고용과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역사회 연계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광주대는 지난해 조선대, 광주여대

등과 함께 대학 연합을 통한 거점 지역대학 도약과 글로벌 상생가치 실현을 비전으로 혁신안을 제출했지만 아쉽게 탈락했다. 특히 5개 대학 연합이 동일 학사구조를 개편하고, 학과 통폐합과 캠퍼스 통합에 이르는 3단계 학사 구조 혁신안은 지역상생과 세계화의 가치를 담아낸 혁신적 발상이었다. 인공지능을 특화시킨 지능형 웰케어 산업을 중심으로 지역혁신과 성장 견인을 위한 미래형 지속가능 산업에 집중하겠다는 호남대의 지난해 혁신안도 지역혁신과 함께 글로벌 도약을 통한 노동시장 선순환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높았다.

광주대의 교육철학은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할 인재 육성’에 있다. 호남대도 ‘뜻을 세우고 정성을 다하자’는 지침아래 대학의 역사를 새롭게 써나가고 있다. 여기에 혁신이 더해지면 지역의 성장을 견인하고 세계와 경쟁이 가능해진다. 혁신과 변화를 선도해 가겠다는 글로벌 대학의 가치도 같은 맥락이다. 단순한 협약을 넘어 과감한 통합을 추구하겠다는 양대학의 담대한 혁신안이 성과로 이어지길 응원한다.

생태 교란종 점령한 광주천 방치할텐가

종류·규모 등 실태도 파악 안돼

광주천이 생태계 교란종으로 점령당하고 있다. 국가하천임에도 교란종 퇴치는 최근 2년새 한번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한다. 광주 지역 환경단체 ‘광주천지킴이 모래톱’은 지난 17일 광주 동구 광주천 인근에서 생태계 교란종으로 지정된 붉은귀거북 2마리가 일광욕하는 모습을 발견했다. 같은날 생태계 교란종으로 분류된 환삼덩쿨도 천변 산책로에서 발견됐다.

지난 2001년 생태계교란종으로 지정된 붉은귀거북은 번식력이 뛰어나고 치어를 먹어 치우지만 국내 생태계에선 천적이 없다.

반려 동물로 길러지던 붉은귀거북은 하천에 버려지며 개체수가 급격하게 늘었다. 광주천에도 2000년대부터 발견되면서 현재는 동구 증심사 인근과 서구 광암교 등 광주천 일대에 넓게 서식하고 있다. 이외에 포식성이 강한 배스와 블루길도 광주천에서 자주 발견되고 있다. 5월 이후에는 생태계교란 식물인 가시박, 양미역취, 돼지풀, 도깨비가지 등이 자라나 산책로

를 뒤덮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식물은 생장이 빠르고 주변 식생을 뒤덮어 토종 식물의 성장을 막는다.

광주천에 생태계 교란 동·식물이 광범위하게 서식하고 있지만 교란종의 종류와 규모 등 정확한 실태가 파악되지 않은 실정이다.

붉은귀거북 등 생태계 교란 동물 퇴치 작업도 진행되지 않고 있다. 매년 해오던 생태 교란 식물 퇴치 작업마저 예산 부족 문제로 지난 2년간 멈췄다. 이로 인해 광주천 일대는 외래종이 번식하고 확산하기에 최적의 조건이 됐다.

광주천은 단순한 도시 하천이 아니다. 국가하천으로 지정됐고, 수달·샬·원앙 같은 멸종위기종과 천연기념물이 서식하는 생물다양성의 보고다. 하지만 외래종이 하천을 잠식하면 이런 귀중한 생명체들이 가장 먼저 밀려난다. 이는 단순한 환경 미관의 문제가 아니라, 도시 전체 생태 안전망이 흔들릴 수 있는 심각한 경고다. 광주가 ‘생태도시’를 지향한다면 광주천의 교란종 확산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지금 대응하지 않으면, 내년엔 되돌릴 수 없는 상태가 될 수도 있다.



호남 최고 정론지 전남일보

PC와 모바일에서 만나 보세요

www.jnilbo.com
m.jnilbo.com
facebook.com/jnilbo
구독문의 (062) 510-0471
광고문의 (062) 512-0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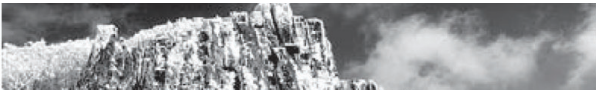
서석대

부끄러운 짓을 하고도 전혀 미안한 마음이나 부끄러운 줄을 모르는 경우에 쓰는 말이 있다. 얼굴이 두껍고 부끄러움이 없다는 뜻의 ‘후안무치(厚顔無恥)’다.

이 말은 옛 중국 하나라의 제3대 왕 태강의 이야기에서 유래했다. 왕위에 오른 태강은 하루가 멀다하고 사냥이나 놀이에 빠져 지냈다. 그는 처음부터 정치에는 관심이 없었다고 한다. 점점 민심이 흉흉해지던 어느날, 태강은 여전히 사냥만 하다가 이웃나라 유공국의 왕 후예에게 귀로를 끊기고 결국 쫓겨나 비참하게 죽었다. 이에 그의 다섯 형제들은 나라를 망친 형을 원망하며 번갈아가면서 노래를 불렀다고 한다. “만백성들은 우리를 원수라 하니 우린 장차 누굴 의지할꼬. 답답하고 서글프다. 이 마음, 낮이 뜨거워지고 부끄러워지구나.”

여기에서 후안(厚顔)과 논어의 ‘무치(無恥)’가 만나 후안무치라는 말이 유래됐다고 한다. 보통 후안무치한 사람은 그 성격이 이기적이고 방자하며 교만함이 하늘을 찌른다. 한마디로 안하무인한 부류들이다.

일본의 정치인들이 그러하다. 그들은 일제침략에 대한 사과를 제대로 한 적이 없고, 위안부에 대한 진심어린 사죄



와 보상에 대해서도 여전히 함구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12월 3일 밤,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사회 혼란으로 대한민국은 제3세계 수준으로 추락했고, 경제는 흔들렸다.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을 일으킨 윤 전 대통령은 지난 4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파면됐다.

그는 파면 선고 이후 일주일간 관저에 머물다 지난 11일 오후 5시10분 서초동 사저로 돌아갔다. 이 과정에서 그는 파면된 전직 대통령이 아니라 마치 해외순방 가는 대통령처럼 행동했다. 관저 정문 앞에 도열해 있는 지지자들과 악수를 하고 포옹을 하는 행동에 대다수 국민들은 “어처구니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퇴임이 아니라 임기 중간에 위법, 위헌한 행위로 파면됐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사과도 없이 오로지 자신의 지지층에만 힘을 쏟은 것이다.

그야말로 ‘후안무치’라 아니할 수 없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빨리 이루어져 형사적 처벌과 함께 역사적인 단죄까지 제대로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는 이유다.

최동환 취재2부 선임부장

全南日報		사장·발행·편집인 이재욱		논설실장	이용환	편집국장 박성원
민주주의 구현 진실보도 실천 지역개발 선도	대표전화	(062)527-0015		경영지원팀	(062)510-0421	
	기사제보	(062)510-0331		광고영업팀	(062)519-0710	
	편집부	(062)510-0412		문화체육부	(062)510-0351	
	취재1부	(062)510-0380		온라인뉴스부	(062)510-0461	
	취재2부	(062)510-0394		사진부	(062)510-0391	
www.jnilbo.com m.jnilbo.com	정치부	(062)510-0340				
		구독료 월 1만5천원 1부 800원	1988년 4월25일 등록번호 광주가-2호 (일간) 우편번호 61474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137			
구독신청 (062)510-0471 광고문의 (062)512-0100						
FAX (062)510-0436 서울지사 (02)725-889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e-메일) webmaster@jnilbo.com